

# 새로 發見된 庚子本 水宮歌에 대하여

柳 鐸 —\*

## I.

판소리 사설은 대개 2系列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원래부터 광대들에 의하여 불리어 오던 傳統的 사설이요, 다른 하나는 19세기 중엽에 申在孝가 당시 광대들이 부르고 있는 판소리 사설을 기저로 改作한 所謂 申在孝의 改新 사설이다.

현재 판소리 사설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료는 주로 申在孝의 改新本인데, 이 申在孝 改新本은, 당시에 광대들이 불렀던 傳統的인 사설이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래 광대들이 불렀던 傳統的인 사설과 어느 정도의 出入이 있는지 비교할 수 없다. 또 申在孝 改新本과 다른 판소리 사설로는 論山에 살던 金澤洙가 李善有(裕)唱本 5種—춘향가, 심청가, 화용도, 수궁가, 박타령—을 모아서 1933년에 발행한 「五歌全集」에 수록된 것이 있다. 이 사설은 申在孝의 改新本과 다른 것으로서 광대들에게 불리던 傳統性을 지닌 것들이다. 그런데 이 「五歌全集」수록 사설은 모두 일제시대 이후에 문자로 정착된 것이어서 원래의 傳統的 사설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傳承定着된 것인지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申在孝가 판소리 사설을 改新할 때, 당시 불리던 판소리 사설을 어떻게 收容 變移시켰느냐 하는 문제와 「五歌全集」에 李善有의 판소리 사설이 얼마만큼 原型을 잃지 않고 傳承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판소리 사설의 연구에 빼어 놓을 수 없는 課題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기 소개되는 이 「水宮歌」는 1900년에 기록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의 하나가 될 것으로 믿는다.

\* 釜山大 師大 副教授

II.

이 「水宮歌」는 韓紙에 庶民筆體로 쓰여진 寫本인데, 이것의 書誌的 特徵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책의 크기 : 가로 17cm, 세로 25cm
- ② 책의 張數 : 38 장
- ③ 行數 : 半葉 10 行
- ④ 表記樣態 : 國漢文混用이며, 誤字 및 取音字들이 자주 나타난다.
- ⑤ 落張 : 全張이 떨어져 나간 것은 없으나, 第1張 前面의 魚尾 쪽에 약 5 行(약 140 여자 정도)이 없다. 그리고 책 下端이 火損되어 每行 1~2 字가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 張에서 前面은 完전하지만, 後面은 앞 쪽으로부터 약 5 行이 破損되고 없다.
- ⑥ 筆寫年紀 : 이 「水宮歌」에는 筆寫年記 및 筆寫後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되한 광무 사연 경자 춘정월의 유아동지 삼사인이 수궁가을 등서할 제 언문도 부족하고 진서도 부족하여 각각 만흔 글씨 중의 오서낙자 만흔온니 글더로 눌러 보옵시되 그 중의 너무……(약 3 行 정도 缺)……밥 잘 먹기난 시○덕 돈갈 씨기 시○덕 옷 잘 입기 과슈덕 술 잘 먹기난 친구덕 천왕시난 목덕 지황시난 화덕 썬 잘 하기 장모덕 // // // 품 // 잘 한다.

위의 인용으로 헤아려 볼 때,

- ㉠ 이것을 기록한 연대는 1900 년 정월이며,
- ㉡ 3~4 인이 합작하여 쓴 것이며,
- ㉢ 여기 쓰여진 서체나, 뒤에 붙은 後記의 外設적 語戲로 보아 下賤의 身分인 사람들의 기록인 것임을 알 수 있다.

㉣ 또 '유아동지 삼사인이 수궁가를 등서할제'에서, 3,4 인이 어떤 臺本을 보고 필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니, 이 때 이미 수궁가는 노래하는 판소리 대본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기보다는 讀書物로서 읽히는 小說的 性格, 즉

판소리 대본이 듣는 판소리에서 눈으로 보고 읽는 讀書物로서의 性格으로 轉移된 것임을 실증해 주고 있다.

⑦ 이 1900년, 즉 庚子년에 쓰여진 「수궁가」를 ‘庚子本水宮歌’(柳鐸一藏)라고 命名한다.

### Ⅲ.

이제 남은 것은 이 ‘庚子本水宮歌’가 申在孝의 水宮歌와 李善有의 水宮歌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밝혀 볼 일이다.

水宮歌에 대해선 康龍權 博士가 “판소리 唱本의 研究”에서 申在孝의 퇴별가, 李善有唱本의 水宮歌, 金演洙唱本의 水宮歌를 비교한 끝에 申在孝의 퇴별가에 비하여 李善有, 金演洙本이 더 密着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서 李·金本은 同系의 사설이요, 申在孝本과는 거리가 있다는 견해이다.

여기서는 申在孝本, 李善有唱本과 ‘庚子本水宮歌’를 比較하여 이 ‘庚子本水宮歌’가 申·李本 중 어느 것과 관계가 깊은지를 알아 본다.

먼저 3異本의 序頭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申在孝改新本〉: 지경 갑신세의 남해 광이왕이 영덕전 시로 짓고 복일 낙성할 시 동서북 삼해용왕 발서 청덕호야 디연을 비설하니 영타고 옥용적과 능타사 채련곡에 풍유도 증할시고 습위로 구전단을 슬토록 서로먹고 이습일 저너도 록 질손 노라 쥬어더니……〈申在孝판소리사설집〉

〈李善有唱本〉: 갑신년 중해월에 남해 광니왕이 영덕전

〈庚子本〉: 甲申年 仲夏月の 남해국광이왕이 영덕전

새로 짓고 대연을 배설하야 삼해룡왕을

시로 짓고 디연을 비설하야 四海龍王이

발설청왕할새 군신빈객이 청신만저였다 강

발설청영홀시 君臣賓客이 천신萬己라 강

한지장과 친택지군이 일시의……

홀지장과 친택지군이 일시의……

위의 셋을 비교해보면, 李善有唱本과 庚子本은 몇 자의 字句가 相違될 뿐 同系異本임을 알 수 있겠고, 申在孝改新本은 바탕은 위의 兩本과 같으나, 措辭가 약간 다른 異本으로 판명된다.

李善有唱本과 申在孝改新本과의 비교는 앞에서 말한 康龍權 博士가 이미 밝혀 놓았으므로 여기서 생략하거니와, 李善有唱本과 庚子本の 관계는 序頭의 비교에서 同一系 異本임을 일견하여 알 수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異同이 발견된다.

李善有唱本은 唱調別 37개의 분단으로 나누어서 각각 그 唱調 즉 진양조, 엇모리, 중모리, 자진모리, 느진중모리 등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37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의 唱調 및 그 順次는 庚子本과 같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얼마간의 부연과 생략이 있을 뿐이다.

李善有唱本 中 第7제 분단인 ‘광이 돌돌탄식’조를 庚子本의 것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異同이 나타난다.

〈庚子本〉: 左右魚頭 幾人之卒而 면면 相對하야 묵묵

〈李善有唱本〉: 좌우어두 귀면지졸이 면면 상고하며 묵묵

不답이이라 龍王이 또 올면 돌돌탄식왈  
부답이어늘 광리 돌돌탄식한다

남의 나라난 충신이 //서 활고지신 리자  
남의 나라 충신 잇서 한고지신 개자

추와 광초망신 기신니도 죽을 임군 살  
추와 망초망신 기신이도 죽을 임군을 살

여신니 군신유의 이안인가 실푸다 우리  
옛쓰니 충신유에 조훈시고 실푸다 우리

슈궁 일충신 업서신니 이도  
수궁 만어지중에 일충신이 업서쓰니 내

또흔 천명니라 죽을 박기 슈가 업다 애  
또한 ○명이라 죽을 받게 할일 없다

고 // 설이 올계 정언 잉어 옛자오되  
정언 잉어가 옛자오대

세송나라 韓난 거신 인심니 소박하여 슈  
 세상이라 하는 대가 인심이 해망하야 수  
 궁인간 일년허면 잡기로만 일삼은니 지혜  
 궁인간이 일년하면 잡기로 위주하니 지혜  
 용뎡 입난 저면 보너지 못하리다 용왕왕  
 용맹이 업는 자는 보내지 못하리라  
 丞相 거복 어더혼요  
 승상 거복이 어더한고

이와 같이 李善有唱本과 庚子本은 同系의 異本임은 틀림이 없고, 자세히 두 본을 살펴볼 때 밀출친 부분과 같이 李善有唱本에는 없고 庚子本에만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李善有唱本은 판소리의 唱의 대본인데 비하여 庚子本은 讀物化된 小說, 즉 판소리의 小說化의 初期의 모습을 들어내고 있음이 흥미롭다.

그런데 李善有唱本과 庚子本은 同系異本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 결말 부분이 서로 다르다. 李善有唱本에는 육지에 도달한 토끼가 자라를 골탕먹이고 산으로 들어가서 초군이 놓은 덫에 치었는데 쉬파리의 도움으로 되살아나고, 간계로 다시 독수리의 화를 면하는 대목으로 끝난 뒤에 자라는 환궁하였고, 용왕의 병은 회복되었다는데 結末을 짓고 있다.

이에 비하여 庚子本에는 육지로 돌아온 다음, 자라를 골탕먹이고 환궁할 때 토끼는 자라를 불러서

이 자래야 너 충성이 지중하야 너의 肝을 구할라고 遠渡蒼海 두번오니 그 아이 충신이야 이 별世上 나왔다가 뒷기肝도 몬 구하고 그계로 드러가게 되면 너의 충성 실디업고 너의 되왕 죽을인니 그 아니 원통홀라 너 어려서 동의보감 보와 기로 화제환장 하여준이 이 화제 간수하야 이갓치 약을 써시면 용왕病세 직효 하리라

와 같이 말하고, 경주비상 두냥중, 구름 안개 양두돈중, 바람실게 한돈 닷중 등 작말하여 먹으면 사생을 판단하리라라고 하고는 다음과 같은 詩를 읊으면서 靑山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小少離家老大回  
鄉音無改鬢毛衰  
兒童相見不相識  
笑問客從何處來

問於何事棲碧山  
笑而不答心自閑

이로 볼 때, 李善有唱本과 庚子本은 同系列의 것이면서도 그 主題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성격을 지닌 異本임을 알 수 있다.

#### Ⅳ.

‘庚子本水宮歌’의 성격을 대략 살펴보았다. 이것이 가지는 가치는, 첫째, 筆寫年代가 정확한 판소리 사설이라는 점이다. 1870년경의 申在孝改新本과 1933년 李善有唱本の 중간인 1900년에 쓴 것이므로 판소리 사설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새로운 자료이며,

둘째, 李善有唱本の 所從來가 바로 이 庚子本水宮歌이며,

셋째, 그 主題的 側面에서 볼 때 李善有唱本과는 성격을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을 가졌고,

넷째, 판소리의 小說化의 초기적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므로 이 方面研究에 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資料인 것이다.

다섯째, 그런 까닭으로 이 庚子本水宮歌를 影印하여 研究者便宜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Handwritten header text at the top of the right page, including the characters '卷之三'.

Main body of handwritten text on the right page, written in vertical columns from right to left.

Handwritten header text at the top of the left page, including the characters '卷之三'.

Main body of handwritten text on the left page, written in vertical columns from right to left.















及 此本言平時由土轉下在至者七條亦以辨改時期... 此本言平時由土轉下在至者七條亦以辨改時期... 此本言平時由土轉下在至者七條亦以辨改時期...

此本言平時由土轉下在至者七條亦以辨改時期...

此本言平時由土轉下在至者七條亦以辨改時期... 此本言平時由土轉下在至者七條亦以辨改時期...

南邊地皆用 卷之八十三 壬午年

31. 1월 25일... 2월 10일... 2월 25일... 3월 10일... 3월 25일... 4월 10일... 4월 25일... 5월 10일... 5월 25일... 6월 10일... 6월 25일... 7월 10일... 7월 25일... 8월 10일... 8월 25일... 9월 10일... 9월 25일... 10월 10일... 10월 25일... 11월 10일... 11월 25일... 12월 10일... 12월 25일...

1월 10일... 1월 25일... 2월 10일... 2월 25일... 3월 10일... 3월 25일... 4월 10일... 4월 25일... 5월 10일... 5월 25일... 6월 10일... 6월 25일... 7월 10일... 7월 25일... 8월 10일... 8월 25일... 9월 10일... 9월 25일... 10월 10일... 10월 25일... 11월 10일... 11월 25일... 12월 10일... 12월 25일...





